

10월 4일 여수서 앙드레 김 패션쇼



앙드레 김 패션쇼를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에서 볼 수 있게 됐다.
8월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 여수시에서 앙드레 김 패션쇼를 대규모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패션쇼에는 패션 인사와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여수시는 예상하고 있다. 패션쇼 장소로는 오동도와 해양공원 중 한 곳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 패션쇼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광주국세청 피서지자 ‘근로장려세제’ 홍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최근 전북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을 찾아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국세청 제공)

SK텔레콤 봉사단, 육아원생 초청 물놀이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안형규) 사랑 나눔이 봉사단은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육아원 아동 20명을 초청, 회순 그린랜드에서 물놀이·게임 등을 즐겼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제공)

한전 전남본부 아동시설에 PC 30대 기증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 사회봉사단(단장 김귀중)은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아동시설에 PC 30대를 기증했다.

(한전 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종친회

▲광산구 가락 종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5일(금)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종친회관. 062-944-1951, 016-612-8125(김형곤).

모임

▲국제와이즈멘 상무클럽 월례회=12일(화) 오후 7시 동구청 옆 불로가물치. 010-6688-8983(사무장 조준호).

알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호남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育, 푸드아트테라피, 매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무소장

애자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침,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지리 봄주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

독도 우리가 지킨다…사상 첫 공모 독도경비대장



강석경 경비
전남경찰청 보안1계

사상 첫 공모 독도경비대장 5인방이 탄생했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강석경(40·보안1계)·박병언(33·기동대) 경비를 비롯해 김병현(41)·양수영(34)·김태석(32) 경비 등 모두 5명을 신임 독도경비대장에 임명했다.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9~20일까지 독도경비대 및 해안초소 근무 체험을 한 뒤 오는 21일부터 1년간 울릉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2~3개월씩 번갈아 독도에 들어가 독도경비대장을 맡게 된다.



박병언 경비
전남경찰청 기동대

“아빠 최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국민과 경찰을 대표해 명예와 긍지를 갖고 독도를 수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보안1계 근무하다 8일 신임 독도경비대장으로 임명된 강석경(40) 경비는 “독도를 지키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독도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고 싶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지난 199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강 경비는 경비작전 업무를 주로 맡아왔으며 지역 순찰팀장, 수사 등 경찰의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그는 “독도경비대장으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면서 “전 국민의 전통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독도에서 뜨거운 국민의 열정만큼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아빠의 독도경비대장 임명에 더욱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광주를 떠나올 때 아내의 격려와 아이들이 ‘아빠 최고다. 독도를 꼭 지켜내야 한다’고 응원해 줘 더욱 사랑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

“조국의 최동단을 지켜낸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영토수호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1998년 순경 공체로 경찰에 입문한 박 병언(33) 경비는 전남지방경찰청 기동대 행정 계장으로 재직 중 독도경비대장에 선발됐다.

재직 10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경위로 승진한 박 경비는 전남경찰에서도 우수한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재다.

그는 경찰 입문 이후 경비관련 부서는 물론 수사와 형사, 교통 등 거의 대부분의 경찰 업무를 경험했다. 그는 “공모를 통한 1호 독도경비대장이라는 명예는 영원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지원했다.

그는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 산망에 올린 독도 경비대장 공모와 관련한 글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박 경비는 “게시글에는 ‘해와 달이 있는 한 제 1호 독도 경비대장도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대목에서 뭔가 끊을해 지원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6살과 4살짜리 아들을 둔 박 경비는 그동안 가족과 한 번도 떨어져 생활한 적이 없었지만 독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도움 됐으면”

‘한상연구 총서’ 33권 완간 전남대 임채완 교수

최근 세계한상문화연구 제3차 총서 11권을 끝으로 총서 33권을 완간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임채완(57·사회대 정치외교학과) 단장은 “3년간 수백명의 연구원들이 매달려 일어낸 귀중한 자료들을 책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웹상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8월5일자 12면〉

임 단장이 재외 한국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반. 김일성 관련 연구를 위해 구 소련, 정희하게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소련파’들을 만났을 때부터다.

“그 곳의 고려인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습관과 고통을 느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제자들에게 고려인의 한

입 단장은 한국에 돌아온 뒤 1991년 본보와 함께 고려인을 위한 한글학교 세우기 모금운동에 나섰다. 운동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6곳의 한글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임 단장은 “제자들에게 고려인의 한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던 것”이며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든 생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네트워크화하면 중국의 학교 못지 않은 힘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생각을 구체화해 199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 공동체 조사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연구단은 그 해 8월 발족했다. 인문학 연구단으로는 꽤 많은 액수인 27억원(3년간)



을 받았다.

임 단장은 이번 총서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9월말께 3년간의 연구 끝에 종양아시아 등 각국 도서관 등에서 얻은 귀중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놓고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대병원 최기철 교수 별세

전남대 의과대학 최기철 신장내과 교수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1세.

1976년 전남의대를 졸업한 고인은 1983년부터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신장센터장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 헌신했다.

대한신장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



신장학회 연구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미경 여사와 두 자녀가 있다.

민소는 화순전남대학교원장 장례식장에서 발인은 11일(월) 오전 9시. 장지는 담양 천주교 묘지. 061-379-7444.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인사

◆목포시

◇4급 〈승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성배 〈전보〉 ▲상하수도사업단 김채홍

◇5급 〈승진〉 ▲산정동장 김진우 ▲죽교동장 박용호 ▲신도심건설과 박동길 ▲연동장 직무대리 한순덕 ▲상학동장 황태호 ▲수복면장 문요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 ▲대덕면장 박영숙 ▲무정면장 안병태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

◇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정승호

◆고흥군

◇4급 승진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5급 〈승진〉 ▲농업축산과장 류